

제5강 일반여성들의 머리모양

1. 쪽머리

쪽머리는 가채금지령 때문에 보편화된 머리모양이다. 이때부터 궁중과 사대부가 사이에서 널리 하게 되었다. 역사가 오래 된 만큼 굴곡도 심하다.

쪽이라는 말은 다함께, 한마음으로, 감싸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북방민족의 공통어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유물과도 일치한다.

진시황 묘에서 출토된 시녀 토용(土俑)이나 한나라 목용(木俑), 초나라 비단그림, 그리고 쌍영총이나 안악2호분 등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이는 쪽머리는 쪽이라는 말의 어원과 일치한다. 비녀가 없는 것으로도 공통점을 이루는 이들 쪽머리는 감싸맸거나, 묶었거나, 낮게 드리워져 있다. 시녀 토용은 명칭이 동심계(同心髻)이다. 동심계는 삼국시대의 쪽머리이며, 1669년 조선왕조 헌종 때 경주부사 민주면의 <동경잡기>라는 책에는 신라 때 북쪽이 불안하게 느껴져 부녀자들로 하여금 뒷머리에 머리를 뭉치게 해서 북계(北髻)라 부르게 한 것이 쪽머리를 있게 한 유래가 되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북계는 그래서 후계(後髻)라는 말로 다른 문헌에 기록되기도 했는데 이는 이여성 선생이 최초 북식사 저서인 <조선북식고>에서 쪽머리를 북계라 표기해 놓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동경잡기>에도 쪽에 비녀를 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고려시대 불화에 비녀를 꽂은 쪽머리가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당시 교유가 있던 송나라의 역사서인 <송사(宋史)>에 고려 여인들이 쪽에 비녀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다른 중국 역사서에 비하면 처음으로 나오는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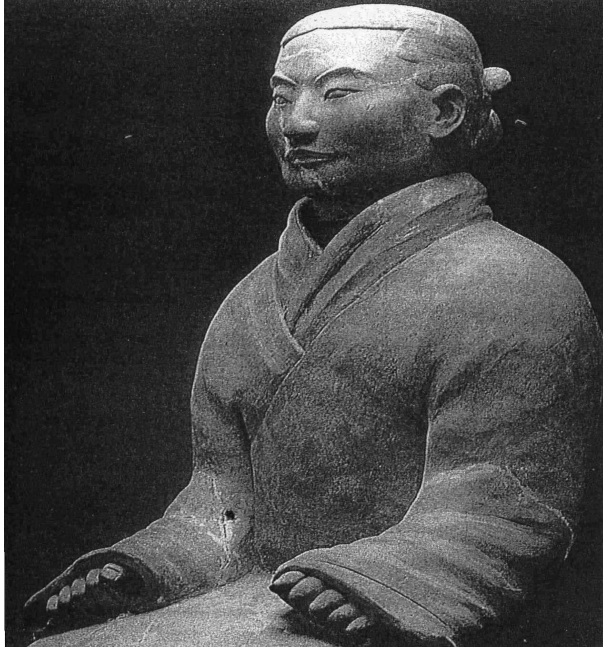
이를 토대로 판단해볼 때 쪽머리는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비녀가 없이 뒷머리에 짧게 해서 묶거나 감쌌던 것으로 보이며 낮고 작게 해서 서린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궁중의 여인들이 외출할 때 비녀를 한 쪽머리에 족두리를 착용하는 관습이 시작되고 이런 관습은 조선에까지 이어져 계속 궁양(宮樣)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가채금지령 때 가채를 금지시키고 궁양을 권장하자 반발이 생겼고 이에 불편한 족두리를 벗고 쪽머리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쪽머리는

치장의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다리를 덧대 크게 하고 비녀와 꽃이를 화려하게 장식해서 꽃는 풍습이 시작되었다.

쪽은 말기로 가면서 궁중과 사대부가를 제외한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낮고, 작게 때로는 두개를 만들어 작은 비녀를 꽃은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시 크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었다.





토용(삼국시대 동심계)





※ 쪽머리(요약)

한국 여인들의 대표적인 고전머리.

북계,또후계 라고도 불리웠지만 남자머리라고 흔히 불려옴.

오랜 전통속에 시대에 따라 그 위치를 약간씩 달리하며, 크고 작은 형태 보이면서 옛 여인들에서부터 현재 이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에게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머리모양.

* 뜻 : 함께하다, 같이하다, 뭉치다

* 시술방법 : 가리마를 타고 양쪽으로 곱게 빗어 뒤로 길게 한줄을 땡아서
땡기로 끝을 묶은 다음 쪽을 만들어 비녀로 고정.

* 혼인 전에는

머리를 길게 길러 양쪽 귀밑머리를 땡고 다시 한 묶음으로 땡다가,
혼인을 하면 귀밑머리를 풀어 길게 하나로 땡아 뒷목에서 틀어 올려
비녀를 꽂는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는 쪽머리는

조선후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영조는 엇은머리의 가채(加髻)가 점차 크고
높아지는 등 사치가 심해지자 쪽머리로 고치라는<발제개혁>을 단행
하였고, 이후 쪽머리가 일반화 됨.

* 동백기름을 바르고 참빗으로 빗어 넘겨 머리 끝에는 빨간 땡기를 들이며
비녀·귀이개·빗치개 등의 뒤꽂이로 장식

* 비녀는 쪽머리의 상징이기도하지만

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구실 외에도, 머리장식품이었음.

크고 긴비녀: 의식용, 작고 짧은비녀: 평상시에 사용하였음

상류계급의부인: 금·은·옥·비취 등으로 만든 비녀를 꽂음

서민층 부인: 나무·빨·뽀로된 비녀만 꽂을 수 있었음.

* 땡기로 신분표시

* 자적땡기: 사대부가의 여인(금, 은, 비취, 옥)

* 붉은땡기: 새댁 기녀(옥, 산호)

* 검은색: 미망인 (은, 옥, 나무)

* 흰색 : 상주(흑각, 나무)

<관련자료>

* 주 서: 주나라 때 주로 예법에 관해 씌어진 책 ‘주서’ 에

백제 여인들의 쪽머리를 했다는 ‘편발반어수후’ 란 기록이 있음.

즉 편발해서 머리 뒤에 서린다는 뜻인데 이는 곧 쪽머리를 뜻하는 말.

* 고구려고분벽화 의 각저총 .무용총 .쌍영총. 수산리벽화의 여인들

* 동경잡기: 조선조 헌종 때 경주부사 민주면 저서

조선시대에 발간되었는데도 드물게 신라시대 경주에 관한 것도 기록하고 있는 귀중한 책으로 이곳에 신라 여인들이하고 있는 머리모양이 기록되어 있다.

1권 풍속편에 “신라 때 수도의 북쪽이 비어 있는 것 같아 여자의 머리카락을 묶어서 뒷머리에 두게 하고, 그 이름을 북계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기록되어있다.

수천년을 이어져 오면서도

한국 여인 고유의 둥근 얼굴형에 한복의 선 과 잘 어우러져온 머리모양이
지금까지 우리들 곁에 편한 모습 그리고 차분히 비녀를 꽂은 모습으로
한국 여인의 자존심을 지켜준 머리가 쪽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2. 땡기머리

쪽머리와 함께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인 고전머리는 땡기머리이다. 한 가지 절묘한 점은 기혼녀의 머리모양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쪽머리라면 미혼녀의 머리모양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머리모양은 땡기머리라는 점이다.

중국의 역사서에도 땡기머리는 미혼녀의 머리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변발수후(女辮髮垂後)라 한 것이 그것이다. 삼국시대 미혼녀의 머리카락이나 고려시대의 미혼녀 머리 역시 땡기머리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조선시대의 땡기머리는 그 역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땡기머리는 양 갈래로 땡아 내리기도 하지만 귀밑에서 촘촘히 땡아 내려 뒤에서 합치기도 한다. 이런 머리를 귀밑머리라고 한다. 조선조 말기 김준근의 풍속화에 나오는 땡기머리는 양쪽 머리 위에서부터 땡아내려 뒷머리와 합치는데 이 역시 귀밑머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뉘뉘해도 이 머리모양의 명칭은 그 끝에 갑사땡기를 매달므로 해서 생긴 땡기머리가 제격이다. 땡은머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체적인 형상에서 나온 명칭일 것이다.

땡기머리는 한마디로 조선 처녀의 전유물이다. 청순한 태도와 순결한 의미를 그대로 대변한다.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도 밀리지 않고 남아 있는 건 그런 분

위기가 더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후기 풍속화에 보면 땡기머리는 아주 길고 탐스럽다. 야사에도 허리 아래 발끝까지 내려온 머리를 한 처녀들이 자주 나온다.

그런 머리는 흔히 삼단같다느니, 감태같다는 말로 비유하기도 했다. 삼단은 삼나무 줄기를 다발로 묶어 놓은 걸 말하고, 감태는 해초 감태를 말한다. 삼단은 탐스럽게 생긴 모양에서, 감태는 새카만 색깔에서 그런 말이 비롯된 것이다.

땡기머리는 상하 구별이 없이 할 수 있었지만 특히 여염의 처녀들은 머리 치장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빗고, 감고, 땡아 항상 정갈하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땡기머리에는 다리를 덧대지 않았다. 자꾸 자라나는 것이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녀시기를 보내고 혼인으로 인해 쪽머리를 하게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머리를 잘라내기도 했다. 쪽을 만들기에 머리술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남자들이 상투를 틀 때 정수리 부분 상투 앞힐 자리를 삭도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경우였다.

만약 하층민이었다면 땡기머리 처녀는 혼인 후 곧바로 엷은머리나 둘레머리를 해야 했다. 이때 술이 많은 머리는 단연 다루기가 좋았다. 엷은머리나 둘레머리는 술이 많을수록 모양을 내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궁중에도 땡기머리가 있었다. 나인들 중에서도 지밀이나 침방, 수방에서 일하는 견습나인들 이외 이를테면 세수간이나 세답방, 소주방 등에서 일하는 견습나인들은 여염의 처녀들처럼 땡기머리를 했다. 이때의 땡기는 짧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땡기머리라는 용어보다 땡은머리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 땡 기

조선의 여인들은 일생을 땡기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어나서 녀 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배씨땡기를 단 이후 나이가 들면서 땡기를 바꾸어 달다가 부부가 해로를 할 때에는 자주빗 쪽땡기를 단다.

땡기는 장식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변발을 해야 했고, 다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머리를 묶는다거나 단정하게 고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땡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 미려한 면에도 치중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인의 역사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관련 기록엔 삼국시대 여인들이 땃기를 매고 있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보인다. 고려시대만 해도 송나라 서궁이 지은 <고려도경>에도 땃기 맨 여인들이 나온다.

배씨땃기 다음으로 매는 땃기는 말뚝땃기, 여기서 머리가 더 길어 처녀가 될 무렵 종종머리가 되면 이번엔 도투락땃기이다. 원래 이 땃기는 혼례 때 매는 땃기인데 처음으로 머리답게 묶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귀엽다고 매주는 것이다.

거기서 머리가 더 길면 비로소 처녀만의 특권이요 전유물인 치렁치렁 땃은 머리에 자주빛 땃기를 단다. 이 땃기는 끝이 제비 주둥이처럼 생겼다 하여 일명 제비부리땃기라고 부른다. 혼례식 때에는 뒤에 도투락땃기 앞에 드림땃기를 단다.

드림땃기는 앞땃기라고도 한다.

이후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기혼자이므로 쪽머리에 다는 쪽땃기이다. 쪽을 만들 때 끝 부분에 가서 끼워 넣어 마무리하는데 그렇게 하면 쪽이 부드럽게 휘어진다. 쪽땃기는 자줏빛을 달지만 상을 당했을 때는 흰색을 달아 상중임을 알린다. 궁중 머리에도 땃기는 필수품이다. 어여머리에는 떠꾸지땃기가 있고, 새양머리에는 네가닥땃기, 무수리나 세수간 나인들은 팔잎땃기를 맨다.

땃기의 주재료는 비단과 무명이다. 색깔이 화려할수록 비단류를 사용한다.

땃기에는 금박으로 길상문(吉祥文)을 넣기도 하고 석옹황이나 옥판, 밀화 등으로 만든 매미를 매달기도 한다. 매미를 다는 이유는 허물을 벗는다는 뜻가, 음식에 앉지 않는다는 등 깨끗한 상징성 때문이다.

3.엷은머리

이 명칭은 이여성 선생이 지은 것이다. 중국에서는 여인의 머리모양 이름을 화가나 문인들이 짓는 경우가 흔히 있다.

남화의 대가이자 역사화가로도 유명한 이여성 선생은 제대로 역사화를 그리기 위해 우리나라 복식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최초 복식사 저서인 <조선복식고>를



저술해 냈다. 일본어로 씌어진 이 책은 해방 후 발간되었다. 바로 이 책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자주 나타나는 머리모양에 명칭이 없자 그중 여섯 가지 머리모양 형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자주 보이는 머리 형태에 없은머리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머리를 잘 빗어 뒤로 하여 두 가닥으로 땀고 이를 서로 엇갈리게 해서 앞머리 위에 모은 다음 또아리를 틀 듯 서리게 하여 엮어 놓은 형태이다. 대표적인 서민 여성들의 머리 형태로 무용총, 삼실총, 오회분 등에 나오는 시녀나 무용수들의 머리모양이다.

없은머리는 변발 풍습이 있는 민족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변발을 이용하는 것 이외엔 특별한 기교가 필요 없는 이 머리모양은 기혼 여성들이 평생토록 하고 있던 것이었다.

따라서 삼국시대 우리의 사정을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에도 이 머리모양이 여러 군데 등장하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기간을 통해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 조선조 말 대표적 풍속화가인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나 외국인이 촬영해 놓은 기록 사진에 이 머리모양을 한 여인들의 모습이 대거 보이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서민층 여성들도 가채머리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시대이다. 조선 초에는 고계와 밑머리, 판머리로 맵시를 냈고 이어서 가채머리, 트레머리가 유행을 하면서 명나라에서 들어온 간결하면서도 위로 올려 부풀린 형태가 널리 퍼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모두 사라지고 신분제도가 사라지기 직전인 말기엔 쪽머리와

엷은머리, 둘레머리, 땡기머리만이 남게 되었다.

이후 쪽머리와 땡기머리만이 남아 오늘에 남게 된 것을 생각해보면 엷은머리의 전통은 실로 유구한 것이었다. 주로 농촌의 아낙들이나 도시의 서민 여성들이 끝까지 해옴으로써 가장 전통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머리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여인의 鬢자취(손미경 : 358-364 참조)



신사임당 영정

참고문헌

- 김수정(2005). 「한국미용100년」. 동서교류
- 문화원형 백과사전(2011). 다음백과사전. 다음커뮤니케이션.
- 브리태니커(2011). 다음백과사전. 다음커뮤니케이션.
- 손미경(2005). 「한국 여인의 鬢 자취」. 이환.
- 손미경(2009). 고전머리따라하기. 미디어뷰.
- 정현진(2005). 「미용문화사」. 광문각